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30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한지붕 두 정책’…개인사업자 대출 충돌 논란

이데일리 https://zrr.kr/rbOHi8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서면서 정책 간 ‘충돌’ 논란이 확대
‘대출을 늘리라는 정책’과 ‘대출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라’는 감독 기조가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동시에 작동하면서 금융권 현장에서는 사실상 양립이 어렵다는 지적

은행, 내달 가산금리 추가 인상…실수요자 부담 더 늘어난다

서울경제 https://zrr.kr/piACg4

금융위원회가 올 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기준을 대출 금액으로 개편한 것은 은행들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 변경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변동하기로 했거나 조정을 검토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더 조인다…이번 주 가계부채 관리

뉴스1 https://zrr.kr/J4oFFd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조이는 '초강도 관리'에 나설 예정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의 총량 목표치를 부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

금감원, 사업자대출 유용 현장점검 착수…하나·농협銀 첫타자

연합뉴스 https://zrr.kr/z6XNRi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본격 착수
다주택자 중에서 강남3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 등 고위험 대출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

"중동전 길어지나" 불안한 개미들... 예탁금 하루 1조원씩 빠져나간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zvHUI1

투자자예탁금은 111조579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지난 4일 132조682억원과 비교하면 3주 만에 20조원 이상 급감한 규모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

회사채 발행 연기…은행대출 등 우회 전략

이데일리 https://zrr.kr/kFmCuX

중동 전쟁 여파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오는 4월 10조원 넘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
이에 일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연기하거나 단기 차입, 은행 대출 등으로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며, 차환 대신 자체 현금으로 상환을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

보험업계, 4월부터 손해율 높은 일부 특약 '판매중단' 러시

중앙이코노미뉴스 https://zrr.kr/kehjCw

최근 생명·손해보험사 전반에서 일부 특약의 보장 축소 또는 개정 계획을 통해 보험료 조정과 신규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하는 등 손해율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
이에 4월부터 한화생명·동양생명·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여러 보험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해온 건강보험 상품군 내 일부 특약들을 판매 중단

한의원 몰려가는 '나이롱 환자'…1.7조 줄줄 샌다

한국경제 https://zrr.kr/q66Sy7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한방병원 진료비는 사상 최대인 1조6972억원으로 2015년대비 375% 증가… 동기간 일반병원 진료비가 1조1142억원으로 7% 줄어든 것과 대조적
업계에선 사고 정도나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다양한 치료를 일시에 시행하는 ‘묶음 청구’(세트 청구)를 보험금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

비트코인, 美 퇴직연금 편입 '초읽기'

한국경제 https://zrr.kr/a0M8kN

미국 401(k) 퇴직연금 시장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편입될 길이 열려… 백악관 규제심사를 거친 관련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
401(k) 자금의 1%만 유입돼도 약 1200억달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며, 연금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 하락 국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

중동 쇼크에 상반기 '코인 입법' 불발…위헌 시비 하반기도 불투명

머니투데이 https://zrr.kr/JsnZ80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처리가 사실상 불발… 중동발 리스크 대응으로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린 게 가장 큰 이유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일정상 하반기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